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산에서 내려오다

〈서하문집〉 3집과 소책자 〈수미행〉을 가지게 된 인담은 뇌장산이 새삼 두려워졌다.

그곳의 험준한 산세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산세가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어떤 그윽한 유혹의 힘에 시를 쓰는 자의 수평하는 자의 특이한 순결한 심혼(心魂)인지라 극각 굴복하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실로 몇 백년만에 세상의 눈에 담은 입춘의 시를 몇 수 읊어 가다가 시 「행로난(行路難)」에 딱 멈추었다. 거기에는 입춘의 불운이 담겨있었다. 그 한 송소리가 들리는 듯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인담으로서의 그런 시인의 박명(博命)에 갇히 연민을 일으킨 나머지 다음과 같은 한 줄이 내뿜고 있는 비약의 극치를 의해서 소박한 연민 따위를 내버려야 하였다.

고은 눈썹 잘못 그려 나라를 하직하듯 (娥眉錯畫辭辭國)

이 절창(絶唱)의 1행에 이르러서 「고은 눈썹 잘못 그려」라는 구절이 고사(故事)에 연유한 것인지 시인의 탐미적(耽美的)인 비유인지 알 수 없었으며 그 자신의 깊은 지식을 한탄하였다.

“좋은 시는 좋은 귀가 있어야겠다. 내 귀가 그런 귀가 되려할진대 더욱 공부해야겠다... 시란 시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한 바이며 일체 만상 위에서만 비로소 한 수의 시로 완성되겠다”

누가 듣지도 않는데, 마치 듣는 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인담은 혼자 입을 열고 있었다.

하기야 몇 백년전의 고려국 스님으로부터 시의 교과서로 삼을 한 시인의 문집을 받을 만큼 영험(靈驗)이 많은 인담인지라 누가 없어도 그 누가 있음이 아니겠는가.

그는 뇌장산 마애불 밑의 굴 속에서 사흘밤을 지냈다. 혹시 짐승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던 것이 첫 날밤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인담이 이곳에서 자낼 작정을 했을 때 짐승들의 소리가 가까워서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 소리는 환청(幻聽)인지도 몰랐다.

“... 오면 함께 자기로 하지” 라고 태연한 생각을 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는 상태의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부싯불을 쳐서 굴 앞에 삭정이 불을 놓았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밤은 아예 짐승의 소리 따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예고은 절담 속에서 생활을 한 중 집어 삼키는 것으로 끼니를 삼았다. 입춘의 시를 조심스럽게 뒤적이는 일도 뇌장산 굴의 이물체부터는 그만 두었다. 그는 한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다.

두고 온 서해 무욕도의 갈대지붕 암자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그림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담인이라는 과거세(過去世)의 스승이 꿈 속에 나타나, 이제 그 스승이 인도한 이곳의 기연(奇緣)을 하염없이 섬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 · 최규일

낙조의 극채색이야말로 피를 뿜는 아픔의 절규...

“... 오면 함께 자기로 하지” 라고 태연한 생각을 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는 상태의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부싯불을 쳐서 굴 앞에 삭정이 불을 놓았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밤은 아예 짐승의 소리 따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예고은 절담 속에서 생활을 한 중 집어 삼키는 것으로 끼니를 삼았다. 입춘의 시를 조심스럽게 뒤적이는 일도 뇌장산 굴의 이물체부터는 그만 두었다. 그는 한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다.

두고 온 서해 무욕도의 갈대지붕 암자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그림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담인이라는 과거세(過去世)의 스승이 꿈 속에 나타나, 이제 그 스승이 인도한 이곳의 기연(奇緣)을 하염없이 섬기지 않으면 안된다.

인담은 마애불상의 그 단조로운 부조(浮彫)를 올려다 보았다. 그 마애불 얼굴에는 어떤 미소도 어떤 표정의 암시도 있을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소승 떠나 고자 하옵나니」라고 말을 하였다.

“... 떠나라는 본부이신가”

우기 시작하였다. 해가 지자 이산 자산의 골짜기에서 짐승들이 한탄적 소리를 내어 그 자신의 존재를 습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부처님 소승 떠나옵나니. 이제까지 그려왔듯이 이후로도 홀로 여기 계시옵소서”

이런 하직인사를 하면서 마애불상을 보았더니 이제까지 거기 암벽에 새겨져 있던 마애불상이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렸다.

“아니!”

“송도라...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요”

인담은 그의 눈빛으로 보아 그들이 세상을 피하여 이런 산중에 은거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였다. 혹시 산채(山齋)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지도 몰랐다.

“송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저 가까이 나들이지요. 궤마(駈馬)를 타면 하룻길이지요. 만보(漫步)라면 며칠이 걸리겠지요”

“...”

인담은 그곳에서 더이상 머물 까닭이 없었다.

“소승의 노복을 풀어 주셔서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할 가시오. 이곳을 지나면 별 탈이 없을 것이요. 다만 명수가 나타나지나 않

그 낙조의 하늘은 아주 원만하지 않은 예리한 암피가 서로 다투듯이 솟아 올라 마치 하늘의 아래 부분을 찢어대서 마구 피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같은 장대함이야말로 비극적이다. 이같은 장대한 아름다움이야말로 불보살의 경지 이기보다 아픔 그대로의 고해(苦海)인 중생의 세계가 펼쳐는 극치인지 모른다.

을지요...”

그들의 호의로 한 사람의 머리 띠 조각이 어느 만큼 인담을 호위해 주는 것이었다. 인담으로서의 절망 속의 보물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다소 불안한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자니 인담은 뇌장산 백담나무 지팡이로 봉술(柳術)이라도 하는 사람인양 공중에 던져 발아내는 것을 은근히 하였다. 수안부에서 신계(新溪)를 거치는 동안 흥각을 돌려보고 예성강(禮成江)을 따라오다가 경산(京山) 땅에서는 아예 물에 떠내려가는 낙배 하나에 탈 수 있었다.

그 때가 경기도 개풍군 정포(鏡浦) 나무에 닿아서야 인담은 풀베개와 허벅지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달구어진 뜨거운 한숨이 그제서야 솟아올라 목구멍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어디 보자”

하고 인담은 예성강 물결이 뱃전에 뛰어들어 오를 때 혹시 그 책이 젖지나 않았는가 하고 살펴보았다. 정포의 갈대밭에 박혀있는 석상 앞에서였다.

“입춘선생이야 이르러서 세상에 확실히 알려질 것인데... 우선 더 꾸루시도록 할 일이고... 그런데 ‘수미행’이 마음에 자주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소책자 〈수미행〉을 새삼 눈을 빛내면서 골골히 펴 보았다.

첫 장에 「몇번이나 지나는 겉화가 강산을 태웠건만 본체는安然하며 한결같이 변하지 않네, 아하하 어떤 열굴인가 (幾經劫火廻山海體自安然不變何何何是何言)」

라는 구절이 그의 눈 안에 스며들었다.

“과연 범상한 말투가 아니로군”

인담은 이 소책자가 그 자신에게는 버거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책자를 마치 수사관이 증거물을 검토하듯이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이것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비기(秘記)가 아닌지도 몰랐다.

“문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세트 1, 세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세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세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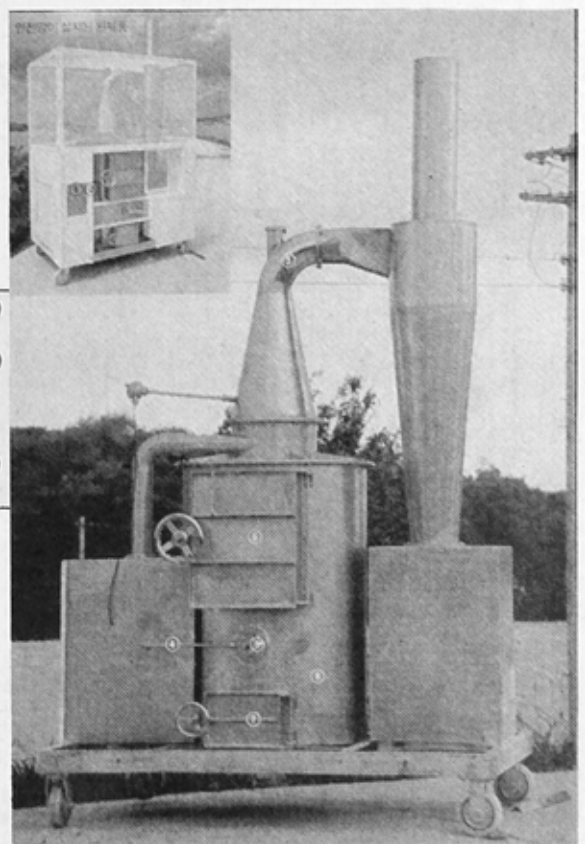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정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시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

- ① 수위차(기판식)
- ② 공기조절 밸브
- ③ 인연전(가스 밀폐구)
- ④ 냉각기
- ⑤ 냉각수 온 임동
- ⑥ 투입구(수직형)
- ⑦ 배출구(수직형)
- ⑧ 수직 배관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